

소규모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2018. 4. 9.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속으로 노후저층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갈등을 초래하던 기존의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이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주민의 힘만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한국감정원이 운영을 맡아 ▲한국감정원 본사(대전·충청·대구·경북) ▲서울사무소(서울·수도권·강원) ▲호남사무소(광주·전라·제주) ▲영남사무소(부산·경남·울산)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상담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도시재생 참여를 돕기 위해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지원 순서



자료: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현장의 낯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4월 10일자 보도자료.